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6.7.31.(금) 조간
배포
2026.7.30.(목)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책임자

국 장 이지원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정훈 (02-3145-7205)

은행권 ETF 신탁 거래 관련 소비자경보 발령

- 본인 투자기간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하세요! -

■ 소비자경보 2026-23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은행권 ETF 신탁 투자자 등

소비자경보 내용

-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 농협

-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단기매매에 불리한 선취수수료 선택이 92% → 후취수수료 대비 평균 7.2배 수수료 수취

-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
- 낮은 목표수익률**은 **낮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I. 발령 배경

□ **(소 금융권)** '25.1월~'26.5월 중 **소 금융권**에서 거래된 ETF 규모는 3,290조원이며, 이중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66조원(2.0%)입니다.

- **은행권** ETF 신탁 판매액은 '26년 들어 **국내 증시 호황**으로 판매액·**소 금융권** 內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판매액·비중:('26.3월) 6.5조원, 1.6% → ('26.4월) 9.2조원, 2.5% → ('26.5월) 14.4조원, 2.6%

□ **(은행권)**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은 '25.12.월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 월 판매액(조원) : ('25.1월) 0.7 → ('25.12월) 1.2 → ('26.3월) 5.6 → ('26.5월) 10.8

- 同 기간 은행의 ETF 신탁수수료 수익은 5,864억원이며, '26.5월(1,036억원) 수수료 수익은 '25.12월(102억원) 대비 10.2배 증가*하였습니다.

* 월별 수수료(억원) : ('25.1월) 61 → ('25.12월) 102 → ('26.3월) 519 → ('26.5월) 1,036

➡ **은행권** ETF 신탁 거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거래 특징, 소비자 보호 실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종합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참고 : ETF 투자자 특징]

- ▶ 평균연령은 59세, 주식 투자경험 보유자 98.5%, 가입채널은 대면 93.3%, 주식형 ETF 비중이 92.9%(국내 82.6%, 해외 10.3%)
- ▶ (평균 기준) 매수액 약 6,200만원(1회당), 보유기간 42일, 계약횟수 5.5회('25.1월~), 고객 수익률(수수료 차감후) 7.5%, 목표수익률(자동매도 설정 수익률) 설정 비중 68.6%(목표수익률 5.5%)

II.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1 과도한 단기매매 심화

□ '25.1월~'26.5월 중 ETF 신탁 거래를 분석한 결과, 보유기간이 짧고(평균 42일) 계약이 빈번('25.1월 이후 동일인 평균 5.5회)하며 '26년 들어 단기매매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일 해당월 매도분 기준) : ('25.12월) 55 → ('26.2월) 31 → ('26.4월) 47 → ('26.5월) 34
총계약 횟수(천건) : ('25上) 85 → ('25下) 280 → ('26.1분기) 335 → ('26.4~5월) 331

- (보유기간) 보유기간 1·3·6개월 미만의 단기보유가 대다수(각 62.7%, 85.9%·94.6%)이며, 10일 내의 초단기보유도 상당한 수준(37.9%)입니다.
- (계약횟수) '25.1월 이후 동일인 평균 누적 계약횟수는 5.5회이며, 10회 이하 가입 87%, 11~50회 12.4%, 50회 이상도 0.6%입니다.

< 누적 계약횟수 현황 > (단위: 명, %)

구분	1~5회	6~10회	11~20회	21~50회	51~100회	101회~	합계
	147,592 (72.5)	29,529 (14.5)	17,360 (8.5)	7,981 (3.9)	984 (0.5)	131 (0.1)	203,577 (100)

※ 동일인 최대 계약횟수는 362회

2 매매 행태·목적에 맞지 않는 신탁수수료 미스매칭

- (높은 선취수수료 비중) 대부분의 ETF 거래가 6개월 내에 매도(94.6%)하는 단기거래임에도, 단기거래에 불리한 선취수수료가 91.7%를 차지합니다.

※ 선취수수료는 가입시 1회(1% 내외), 후취수수료(연 1% 내외)는 해지시 일할 납부하기 때문에, 신탁 기간이 짧을수록 후취가 고객에게 유리

- 10일·1개월·3개월 내 계약 해지 건의 대부분도 선취수수료를 선택(각 98%, 96.4%, 93.8%) 하였고,
-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이 작아, 고객의 이익과 상반되는 수수료 선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유기간별 선취수수료 선택 현황 > (단위: 천건, %)

구분	10일내		1개월내		3개월내		6개월내(A)		6~1년(B)		1년 이상(C)		합계(A+B+C)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74.1	(98.0)	446.6	(96.4)	595.2	(93.8)	640.4	(91.7)	20.8	(57.5)	1.6	(40.9)	662.8	(89.7)

*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

- (낮은 목표수익률) 목표수익률 5% 이하 설정 계좌가 다수(58.1%*)이며, 3%·1% 이하 등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계좌도 상당수(각 20.8%·1.1%)입니다.

* 목표수익률 비중(%) : (1%↓) 1.1, (3%↓) 20.8, (5%↓) 58.1, (10%↓) 91.4, (10%↑) 8.6

- 소비자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할수록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선취수수료 선택시 수수료 부담 증가 및 수수료 납부분에 대한 투자기회 상실로 손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 (사례, ㄱ불임) 투자금 1억원 13회 ETF 투자 A씨가 선취수수료 선택시 후취수수료 대비 수수료 추가부담 1,622만원, 투자수익 상실분 799만원 (총 2,421만원 손해)

- 목표수익률 1%, 1~3%, 3~5%로 낮게 설정한 계약 중 선취수수료 선택이 거의 100% 수준(각 100%, 99.3%, 99.3%)입니다.

< 목표수익률별 선취수수료 선택 현황 > (단위: 천건, %)

구분	1% 이하		1%~3%		3%~5%		5%~10%		10% 초과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7.9	(100)	138.5	(99.3)	261.5	(99.3)	194.2	(82.4)	51.2	(84.3)	653.2	(92.4)

* 선취수수료 선택 비중

- **(과도한 수수료수취)** 선취수수료와 낮은 목표수익률 설정의 조합으로 은행은 고객 최적 신탁수수료* 대비 7배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하였습니다.

* 1년 內 해지시 후취수수료(年 1%), 1년 後 해지시 선취수수료(1%) 선택을 가정

- 고객이 최적 신탁수수료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재산정할 경우, 은행이 받았을 신탁수수료는 545억원입니다.

- 하지만 은행이 실제 수취한 신탁수수료(3,948억원*)는 최적 신탁수수료(545억원)의 7.2배(+3,403억원) 수준입니다.

* '25.1.1.~'26.6.5. 기간중 ETF 신탁을 가입하고 해지한 고객이 납부한 선취·후취수수료

- '25.1월~'26.5월 중 6개 은행 ETF 신탁 고객의 매각차익은 2.91조원이며, 同 기간 은행 신탁수수료 수익은 3,948억원(13.6%)입니다.

- 추가하락에 따른 손실 부담이 고객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은행은 잦은 매매, 선취수수료 수취를 통해 고객이익의 14%를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3 투자 취약계층의 ETF 신탁 거래 증가

- '25.1월 이후 고령층(65세·80세) 및 주식 투자경험을 미보유한 투자 취약계층의 ETF 신탁 거래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 (고령층) 同기간 중 65세·80세 이상 투자자 비중은 29.9%, 1.1%이며, 월별 ETF 매수자 중 65세 이상 비중은 증가했고, 80세 이상 비중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 65세 이상(건, 비중) : ['25.12월 6,492(28.3%) → ['26.3월 28,656(30.9%) → ['26.5월 52,082(31.7%)
80세 이상(건, 비중) : ['25.12월 262(1.1%) → ['26.3월 911(1.0%) → ['26.5월 1,715(1.0%)

- (투자경험 미보유자) 주식 관련 투자경험 미보유자 비중*은 1.5%이며, '26.5월(1,426건) 가입건은 '25.12월(657건) 대비 2.2배 증가했습니다.

* 주식 관련 투자경험 미보유자(건 비중) : ['25.12월 657(2.9%) → ['26.4월 1,148(1.0%) → ['26.5월 1,426(0.9%)

Ⅲ. 소비자 유의사항

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

- 일반적으로 투자기간이 장기(예: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선취수수료, 단기(예: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후취수수료가 고객에게 유리*합니다.

* 투자기간별 후취수수료(年 1%) : (10일) 0.03% (1개월) 0.08% (3개월) 0.25% (6개월) 0.49% (1년) 1%

- 특히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훨씬 유리하므로, 단기 매매가 예상되는 투자자는 후취수수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목표수익률을 지나치게 낮은 수준(예: 1~3%)으로 설정할 경우 잦은 매매가 발생하고 수익률 대비 수수료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습니다.

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은행 ETF 신탁은 증권사를 통한 직접매매(MTS 등)에 비하여 신탁 수수료 등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므로, 단기 반복거래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주식형 ETF는 은행에서 매수하더라도 주가 변동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TF 신탁상품의 위험등급, ETF 종목별 투자대상 등을 확인하고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⑤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은 고객의 운용지시 후 ETF를 장중에 분할·지연 매매하므로 주가가 급변동하는 경우 운용지시 시점 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IV.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업계·협회 등과 TF를 구성하여 ETF 포함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은행 내부 성과평가(KPI) 및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① (수수료 체계) ①선·후취수수료, ②중도해지수수료*, ③매매수수료 등 신탁 수수료 체계 전반을 Zero-base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선취수수료 수취후 1년내 해지시 선취수수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동일한 금액을 중도해지수수료로 수취 (고객 입장에서 실질은 동일한 형식적 거래에 불과)

○ 신탁 관련 수수료의 구조·적정성 등을 논의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② (KPI)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탁 관련 KPI 개선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대부분의 은행이 KPI에 '고객 투자수익률' 지표 등을 반영하고 있는데, 同 지표의 산식·배점 등이 적정한지 논의하겠습니다.

③ (소비자 중심 판매전략) 금융소비자 중심의 전사적 ETF 판매전략·원칙을 수립하고 영업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창구직원 개인역량에 의존한 단기매매 위주의 권유에서 벗어나,

○ 자산수준·연령대 등 고객군별 투자목적·기간에 부합하는 전사적 차원의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일선 영업점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판매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6.1.6.~'26.6.4. 중 70대 남성고객 A씨는 T○○○○ 반도체 TOP 10을 총 13회 거래(평균 보유일수 10일, 누적수익률 78.8%)
- (실제 : 선취) 자본금 1억원 투자 후 운용결과가 1.7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선취수수료 1,704만원 납부
 - (가정 : 후취) 동일 조건에서 후취수수료를 선택하였을 경우 후취수수료는 56만원, 투자 후 운용결과는 2.03억원으로 증가(선취 선택 대비 +2,421만원, 누적수익률 103.1%)

➡ 후취수수료 선택시 선취수수료 절감분 등에 대한 복리효과(799만원)로 수수료 절감액(1,622만원) 보다 더 크게 수익이 증가(+2,421만원) 즉, 단기투자자는 선취수수료 선택으로 인해 수수료 절감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

< 000지점 70대 남성고객 사례 >

(단위 : 천원, 일)

개설일	해지일	보유 일수	(실제) 선취 납부					(가정) 후취 납부				
			자본금	선취 수수료	매매 수수료	투자후 자본금	수익률*	자본금	매매 수수료	후취 수수료	투자후 자본금	수익률*
'26.1.6.	'26.1.7.	1	100,000	1,000	198	103,931	3.9	100,000	200	3	104,978	5.0
'26.1.13.	'26.1.22.	9	103,931	1,039	206	108,554	4.4	104,978	210	27	110,728	5.5
'26.1.27.	'26.1.28.	1	108,554	1,086	215	112,820	3.9	110,728	221	3	116,239	5.0
'26.2.2.	'26.2.23.	21	112,820	1,128	223	118,071	4.7	116,239	232	71	122,807	5.7
'26.2.26.	'26.2.27.	1	118,071	1,181	234	122,661	3.9	122,807	246	4	128,866	4.9
'26.3.5.	'26.4.16.	42	122,661	1,227	243	127,477	3.9	128,866	258	156	135,122	4.9
'26.4.22.	'26.4.27.	5	127,477	1,275	252	132,484	3.9	135,122	270	19	141,829	5.0
'26.4.22.	'26.4.27.	5	132,484	1,325	262	137,691	3.9	141,829	284	20	148,872	5.0
'26.4.30.	'26.5.6.	6	137,691	1,377	273	147,031	6.8	148,872	298	26	160,549	7.8
'26.4.30.	'26.5.6.	6	147,031	1,470	291	157,087	6.8	160,549	321	28	173,235	7.9
'26.5.11.	'26.5.27.	16	157,087	1,571	311	164,160	4.5	173,235	346	80	182,782	5.5
'26.5.11.	'26.5.27.	16	164,160	1,642	325	172,082	4.8	182,782	366	85	193,454	5.8
'26.5.29.	'26.6.4.	6	172,082	1,721	341	178,842	3.9	193,454	387	33	203,051	5.0
합계		-	-	17,040	3,374	-	78.8	-	3,639	556	-	103.1

* 수수료 차감후 최종 고객수익률